

문재인정부 1년, 다시 찾아온 봄

기고 | 남북 정상, 평화·번영 큰 그림 그렸다
정훈이 만화 | 냉전보다 냉면



5월의 '지금'

제철 농산물 정보 및 레시피는
농식품정보누리(www.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좋은 레드푸드, 토마토

토마토는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세포에 젊음을 선사하는 라이코펜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특히, 열을 가해 조리하면 라이코펜이 체내에 잘 흡수되는 특징이 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토마토는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주며,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고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토마토 요리



토마토 달걀 스테이크



토마토 그라탱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가지 피자

토마토

양파

만병통치 식재료, 양파

양파는 150가지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특유의 매콤함과 단맛, 개운함이 더해져 찌개나 각종 음식의 식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칼슘, 인, 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성장기 청소년에게 매우 유익하며,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고혈압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선택법 및 보관법

양파는 수분이 많아 망에 담긴 상태로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걸어두어야만 썩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다. 껍질을 깬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Korea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5월에 부르는 사모곡

H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긴 시간 지병과 합병증으로 고생하셨고, 여러 자식들 가운데서도 H가 내내 그 뒷바라지를 감당해왔다. 노모의 연세와 병증을 고려할 때 누구라도 호상이라고 말할

만하지만, 그래도 그의 슬픔은 크고 깊으리라.

H의 경우처럼 부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가정을 꾸리지 않은 자식이 불리해지는 면이 있다. 제 밑으로 떨어진 식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수발과 같은 육체적, 감정적 노동 강도가 센 일을 떠맡게 된다거나, 집안 대소사마다 자의든 타의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거나. 그동안 나와 주변 지인들은 고령의 환자인 모친보다 볼모(?)로 붙들린 H의 처지를 염려했다. 자발적 희생이었던, 은근 몰아가는 분위기였던, 아무튼 H가 의연히 어머니를 책임진 덕분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고통 분담의 비중을 줄일 수 있었을 테다. 중증환자의 가정 간호란 가족이라는 의무감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당사자인들 모를까. 그럼에도 H의 마음가짐은 굳건했다. 옆에서 오지랖 넓은 참견을 할 때에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몸의 고단함이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 마음만은 행복하다고.

나는 그의 우직한 치사량이 갑갑했다. 저러다 그가 먼저 쓰러지면 어쩌나. 그의 가족은 왜 그에게 모든 걸 미루나.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는 그냥 노는 사람인가. 그렇게 내 멋대로 판단했다. 주제님께 판단했다. 그러나 나는 H의 가족을 질책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오래전 나의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간호와 보호의 손길이 늘 필요한 약한 존재로 10여 년 가까이 병석에 있었을 때, 나는 우리 가족이 나눠야 할 의무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멀리 달아났던 사람이 아닌가.

H 어머니의 빈소는 남쪽 도시에 차려졌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올라간 날이었다. 벚꽃과 개나리와 진달래는 자취 없어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조팝꽃과 짙레꽃과 이팝꽃이 흐드러졌다. 28년 전 엄마의 부음을 듣고 황망히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해 봄날에도 길가에, 언덕에, 골짜기에 조팝꽃과 짙레꽃이 한창이었다. 그때 내 눈에는 온통 눈부신 그 흰빛들이 모조리 소복으로, 상여꽃으로 보였다. 그날 이후 봄날의 조팝꽃과 이팝꽃과 짙레꽃, 그 흰빛들을 볼 때마다 나의 마른 우물 속 깊은 바닥에도 물기가 고이곤 한다.

만약 내가 스물두 살로 되돌아간다면?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기 전에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된 엄마를 두고 달아나지 않을 수 있을까. H처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역시나 자신이 없었다. 인간이란 한없이 어리석어서 어쩌면 나는 똑같은 불효를 되풀이할지 모른다. 그러고는 희디흰 꽃잎들 지천인 어느 봄날 또다시 너무 늦은 용서를 구할지도 모른다. 미안하다고, 그저 미안하다고, 그저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상복 입은 H는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은 찡찡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의 찡찡함. 나는 그의 당당한 슬픔이 부러웠다. 그의 사랑의 방식이 부러웠다. 돌아오는 길은 멀고 서러웠다. 이별하고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봄날의 어느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



정길연 | 소설가

내 인생의
한 컷



2005년 5월 평양자수연구소를 방문해 북측 수예가들의 작업을 지켜보는 모습 | 정경희

다시 평양에 가서 살구를 따고 싶다

“내년에 살구 따러 다시 올래요.”

2005년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내 옆에 앉은 안내원, 한 선생에게 한 말이다. 순안공항에서 승합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가던 중 천리마 동상 아래 나무가 우거진 모습이 특이하나 아름다웠다. 그래서 내년에도 평양을 꼭 오고 싶다는 바람으로 말한 것이다.

나는 말한 대로 된다고 믿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이듬해 3월 다시 평양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 겨울이라 살구는 따지 못하고, 안내원도 바뀌어 섭섭했다. 어쨌든 박물관 관람 일정이 있기에 오전에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오후에는 조선미술박물관을 가기로 했다. 점심을 먹으러 옥류관으로 갔다. 이번에 2018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다들 맛있게 먹었던 평양냉면을 먹으려. 그런데 웬일인가? 저만치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바로 한 선생이었다. 이번에는 못 보나 했는데, 1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것이다. 평양 시내에서 남쪽 여자가 북쪽 안내원을 다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반가워 두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린 기억이 새롭다. 그 후 잘 있다는 안부는 들었으나 다시 만나지 못한 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평양의 한 선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멍멍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바로 한 선생과의 추억이 담긴 평양자수연구소의 사진이다. 당시 남북의 인간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2005년 ‘제1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을 기획하던 중이었다. 내 의도를 이해한 그의 따뜻한 배려로 자수연구소를 방문해 구석구석 살펴보고 많은 것을 알게 된 기회였다. 공훈예술가인 로정복 소장을 만났고, 20평 남짓 큰 수예실 두 방에는 수십 명의 수예가들이 울긋불긋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채 수를 놓고 있었다. 나이 지긋한 여성들은 혼자나 둘이서 예술작품을, 나이 어린 학생들은 둘씩, 넷씩 마주 앉아 수출용 ‘가화만사성’ 글자나 소품을 수놓았다.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자수를 놓고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왜 북한에 가서 장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답을 찾은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미술대학에서 공예과가 점점 줄어들고, 장인에 의해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전통공예도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다.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문화재청에 취직해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02년 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8호 바디장 구진갑 보유자의 기록영화를 찍고 책을 썼다. 하지만 2006년 그분이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후계자가 없어 맥이 끊어진 상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2006년 제2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을 추진하게 됐다. 그리고 몇 차례의 방북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공예>, <북한의 박물관>, <고려왕릉> 등의 책을 냈고, 그중 <북한의 박물관>은 일본학자와 5년간 노력 끝에 2018년 번역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우리 인간문화재, 그중 전통공예의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싶어 북한의 실상을 알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평양자수연구소, 만수대창작사, 평양미술대학, 조선민속박물관 등에서 수많은 수예, 도예, 나전칠기에 종사하는 젊은 공예가와 교류한 것이다.

그로부터 11년간, 한 선생도 없고 인간문화재의 남북 교류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은 인간문화재의 남북 교류에도 희소식이 되길 바란다. 우리 전통공예를 되살릴 방법을 인간문화재의 남북 교류를 통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된다.

‘다시 평양에 가서 살구를 따고 싶다.’

장경희 | 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Weekly

공감

No.452
2018. 05. 07



- 01 **살며 생각하며**
5월에 부르는 사모곡
- 02 **내 인생의 한 컷**
다시 평양에 가서 살구를 따고 싶다

2018 남북정상회담

- 06 **새로운 평화시대 남과 북이 함께 만든다**
- 08 **판문점 선언 의미**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시대’ 향한 담대한 발걸음
- 12 **정상회담 그 후**
“남북 공동 번영 획기적 계기 마련”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도 속도 높여
- 16 **국내 및 주요국 반응**
“북한 지도자 남쪽으로 오게 한 첫 대통령”
- 18 | **기고** | 남북 정상, 평화·번영 큰 그림 그렸다
- 20 **연평도는 지금**
옛 상처 지우고 평화를 꿈꾸다
- 22 **인터뷰**
조향사 **이성민** 퍼플라이퍼 대표
“이산가족들의 그리움 통일향수로 달래드렸죠”
- 24 **찾아가는 신문고**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들이 본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 전문가로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어요”
- 28 **정훈이 만화** | 이슈를 품은 역사 이야기

문재인정부 1년

- 30 **사진으로 본 문재인정부 1년**
- 38 **평화, 외교, 일자리, 민생, 소통 집중**
문재인정부 1년, 다시 찾아온 봄



Cover Story

이성민 조향사는 “많은 사람이 향에서 공감하는 지점을 찾아내 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나 관념을 정의하는 게 조향사가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산가족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만든 통일향수도 같은 맥락에서 만들었다. 통일향수가 어르신들의 노스텔지어를 달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해야 할 이유를 찾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 40 **인터뷰**
동행으로 행복한 사람들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이정자** 관장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김병호** 씨
- 44 **인터뷰**
CNN, WP에도 소개된 아티스트 바리스타 **이강빈**
“‘크림아트’ 하면 한국 떠올리게 만들고 싶어요”
- 46 **공감인물**
최고 명창들만 올랐던 국립극장 완창 무대
국악계 아이들이 ‘떴다’
- 49 **인포뉴스**
희망 여가활동은 관광, 현실은 TV보기
- 50 **문화공감**
‘밥 잘 사주는 영자 누나’ 엄선 휴게소 미식회 베스트 5
- 52 **문화현장**
색채의 미술사 마르크 샤갈 특별전 ‘영혼의 정원’
- 56 **문화현장**
나만의 공예를 만나는 1주일 ‘2018 공예주간’
일상의 가치 높이고 아름다움 담는다
- 60 **이 주의 정책 뉴스**
- 62 **문화마당**
- 64 **참여공감**



발행일 2018. 05. 0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도종환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044-203-3014
제작협력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팩컴코리아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수신자부담)
080-906-4480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ri.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새로운 평화시대 남과 북이 함께 만든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에 합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남과 북임도 분명히 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전쟁 종식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명시했다.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로 한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법적 개념이다.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평화협정이 절대적으로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건 아닌 셈이다.

중요한 건 사실상의 평화다. 남과 북이 협력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상황을 의미한다. 가령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안심하고 어로활동을 하는 것이 해당한다.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하고 남

북 철도·도로를 통해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즉, 평화협정과 사실상의 평화는 상호 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불가침을 보장하고 남북이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일 모두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와 같은 의지가 망라돼 있다.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분야별 회담을 개최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안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도 필수다. 남북 정상은 차근 차근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직통전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단절됐던 교류의 접점을 늘려 동질성을 회복해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평화시대를 기대해봄 직하다.



단독공동사진기자단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시대’ 향한 담대한 발걸음

선수현 | 위클리공감 기자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후 가진 선언문 발표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며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공표했다. 남북 정상이 4월 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와 포옹은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판문점은 남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3개 조 13개 항으로 이뤄졌다.

남과 북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기존의 선언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동안 합의가 됐어도 불이행이 반복된 과거를 교훈삼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안정적·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평화의 선순환 기대

분야별로 고위급회담 등의 대화를 개최하고 실천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 후속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곧 개최해 합의 내용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협치채널로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 사무소에는 양측 당국자가 상주한다. 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사이의 정치적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확대가 촉진되고 안정성을 담보한다. 이로써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절됐던 민간 교류도 재개된다. 교류협력은 남북 화해와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상징성이 컸다. 남북은 6·15, 8·15, 10·4 등을 계기로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화해 협력의 접점을 늘려가기로 했다. 또 기존 추진하던 사업 중 겨례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 재개부터 협의에 나선다. 오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감동을 재현할 수 있도록 남북체육회담 등을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된다. 무엇보다 고령의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만남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2007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0·4 선언의 주요 합의들도 적극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다. 남북은 현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방식부터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틀 속에서 10·4 선언 이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부산과 나선을 잇는 동해권 벨트, 목포에서 수도권, 개성,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벨트, 동서를 아우르는 DMZ 벨트 등 3대 벨트를 축으로 하는 민족 번영의 청사진이다. 이와 같이 경제협력이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형성된 평화가 다시 협력을 촉진하는 선순환의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남북은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철도·도로 연결에도 나선다. 향후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선(제진~금강산)과 경의선(문산~개성) 철도 연결공사는 이미 종로돼 2007년 5월 철도 연결 시험운행까지 마친 상태다.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 남북을 이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

- ① 민족 자주성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 ② 분야별 고위급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 대책 수립
-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지역 설치
-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 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⑥ 10·4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 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공동 목표 확인

※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한편 국방부는 5월 1일 대북방송 확성기 철거에 착수했다. 북한도 군사분계선 내 확성기를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첫 단계가 발효된 것이다.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를 완전히 비무장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남북 군대는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군사분계선의 근접 거리에서 남북 군대가 대치했고 일촉즉발의 상황도 왕왕 발생했다. 향후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2km씩 이격될 경우 우발적 충돌 위험이 근본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분쟁과 갈등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5월 중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지역과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그동안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경지대의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의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은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쟁이 한반도에서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9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우리 측 특사단 면담 시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남북은 군비 축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군축 문제 역시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 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명시된 사안이다.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춰 남북 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를 건너며 산책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축 문제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불안정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는데 이로 인해 한국이 저평가되는 것(Korea Discount)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도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회담에 직접 참여해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남북이 적



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올해 가을 평양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다.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2018년 2차 정상회담이 된다. 이와 같이 남북은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의사를 교환하기로 했다. 향후 남북관계가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 의지 전 세계에 표명

2018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개최됐다. 남북관계 발전의 큰 틀에 대해 협의하고 일관된 기조로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남북 정상이 지속적인 대화 모멘텀을 확보할 수도 있다. 올해 가을 평양에서 차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례적 만남과 직통전화를 통해 소통을 늘려가면 그동안 풀기 어려웠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역할도 재확인했다. 남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지 않던 긴장 국면을 전환시켰다. 남북이 뜻을 모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데 이어 손을 맞잡고 대화를 재개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에도 이바지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였다.

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전 세계는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측 지역을 처음 방문한 점도 주목받았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표명의 뜻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초기의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켰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를 낙관하며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남북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북미 사이에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북 공동 번영 획기적 계기 마련”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도 속도 높여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30일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다.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다”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주었다. 이번 정상회담에 많

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공적 회담을 위해 진심과 성의를 다해준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이행추진위로 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해 기립 박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으로, 그야말로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네 가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합의 내용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며 “(이것을) 잘 구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 사전 조사를 연구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5월 안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 것도 주요한 후속조치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며 “이것은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를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한 기본 사항까지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며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제정돼 2006년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 미·일·러 정상과 릴레이 통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29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제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결을 내놴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5분간 통화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75분 통화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최장시간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호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미회담 시기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월 29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1 2

을 고대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미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문 대통령은 후보지로 제주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어 4월 29일 오전 아베 총리와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했고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움직임은 전향적”이라며 “이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로 북미회담이 성공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데 공감하고 비핵화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북미회담을 통해 합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김 위원장 사이에 북일 대화 의사를 전하고 “북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기여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급파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4월 2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서 원장을 보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런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자주 생기는 게 아니다. 한반도라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이뤄내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하며,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한 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남·북·러 3자가 함께 착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 핵실험장, 유엔도 함께 확인해달라”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에 먼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 주석이 지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각종 현안을 풀어가고 있어 며칠 뒤에 통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가진 30여 분간 통화에서 유엔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



1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도 잇따라 통화했다. 사진은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문 대통령.

2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4월 29일 브리핑에서 남북이 현재 30분 차이를 보이는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상회담 당일 평화의 집 1층 접견실에 걸려 있던 서울과 평양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3 청와대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2층 로비에서 '다시 찾아온 봄, 문재인정부의 1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을 개최한다. 국내 1호 브릭 사진가인 이제형 작가가 브릭과 피규어를 활용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연출 사진 작품을 선보였다. | 청와대

담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테레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총회나 안보리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유엔의 지지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요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테레스 총장은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과 협력하도록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을 위해 방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4강외교를 본격화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 대신 참석하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 발전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중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 환경,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북한 지도자 남쪽으로 오게 한 첫 대통령”

오동룡 | 위클리공감 기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세계의 눈이 한반도의 판문점을 주시했다. 국민들은 일터나 터미널, 학교, 영화관 등에서 정전 이후 처음으로 남측을 방문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가 무섭게 경기도 파주 일대 땅값이 들쭉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현재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기도 파주에 ‘제2개성공단’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지난 4월 30일 코스피 시장은 2500선 안착으로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남북 철도 관련 주(株)들이 급등했고, 특히 현대건설, 현대로템, 한라, 동양철관 등 남북 경협 수혜 업종들은 30% 가까이 급등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실향민들의 마음은 더 절절했다. 우리나라 대표 실향민촌인 강원도 속초 아바이마을의 김진국 노인 회장은 “이산가족 1세대의 소원이라면 고향에 한 번 가보고 눈을 감는 것”이라며 “한때 400명을 넘었던 아바이들이 대부분 세상을 뜨고 이제는 1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고향 방문 같은 실향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지역 대표 일간지인 <데일리 헤럴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인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데일리 헤럴드>는 4월 27일자 인터넷판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한국전쟁 종전을 알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발표한 데 대해 대다수의 한인들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해외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매우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전 당시 해군 부대원으로 전투에 참여해 브론즈와 실버 스타 메달을 받았던 프랜시스 노르모일씨는 “6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두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신뢰와 평화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한국전 당시 해군 장교로 참전했던 로버트 그리피스 씨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

인 빠른 변화와 진행 모습이 놀라웠으며, 앞으로도 남북한의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각국 지도자들도 남북한 국민들 못지않게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국과 북한 간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전쟁 종식! 미국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남북의 역사적 회담, 한반도 평화·번영 진전을 기대한다”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고무됐다. 한국과 북한의 역사적 회담을 축하하고 싶다”며 “김 위원장이 어떠한 새로운 약속을 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전쟁 종식! 미국은 자랑스러워해야”

중국 외교부는 “회담의 긍정적 성과를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여정 개척을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 결과는 아주 긍정적 소식”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행보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판문점 선언은 긍정적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회복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독일 외무부는 “한국의 진지한 노력으로 화해 단계 진입을 환영한다”며 “실질적이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젠틀로니 총리는 “한국과 북한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 지도자의 평화를 향한 담대한 약속을 칭송한다”고 했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진정성 있는 역사적 남북회담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 세계 주요 외신의 반응은 뜨거웠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 장면’으로 꼽



1 4월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월경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맞이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2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미군 참전용사 및 가족들이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3 미국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앵커가 회담 당일 남북정상회담을 속보로 전하고 있다.(CNN 화면 캡처)

4 4월 29일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물에 남북, 북미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재향군인회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창성동 별관,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을 거쳐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으며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영국 BBC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직후 “한반도 역사에서 엄청난 순간”이라고 전했다. 로라 비커 BBC 한국특파원은 트위터에 “그들은 (휴전)선을 건너 손을 잡았고,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적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두 코리아가 ‘세계 역사의 대전환’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의 작은 한 걸음, 한반도 화합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4월 28일자 보도에서 “거의 70년의 공식적 전쟁 상황을 끝내는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남북 정상의 45분간 산책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4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해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는 ‘햇볕정책’ 창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남북정상회담이 핵무기 폐기에 관한 김 위원장의 협상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휴전선을 건너 김 위원장의 결정은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할 수조차 없어 보였던 가능성”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CNN은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헤드라인과 함께 남북 정상의 만남부터 회담까지를 상세히 전

했다.

일본 방송들도 일제히 생방송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했다. 공영방송 NHK는 생중계 체제로 전환해 스튜디오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불러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소개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회담 상황 전 과정을 후속 보도하기도 했다. CCTV는 회담 당일 아침 뉴스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장인 판문점으로 출발하는 영상 보도를 시작으로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천시(天時), 지리(올림픽 개최지의 이로움), 인화(人和, 남북의 성의)가 어우러져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신화매일전신>, 4월 28일).

유럽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노력을 평가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는 “문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를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게 한 첫 대통령”(4월 27일)이라고 했고, <르몽드>는 “한국인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주의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4월 26일)고 전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연설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4월 28일)고 전했다.

| 기고 |

남북 정상, 평화·번영 큰 그림 그렸다

아주 오랜만에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왔다. 이 봄이 우리 민족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한다는 희망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었던 안보 위기의 겨울이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이 나 미국에 의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느껴지는 흑한에 시달렸다.

작년 이맘 때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연일 발설할 때 전쟁 불가를 외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불안한 상황은 작년 9월 북한의 수소폭탄급 핵 실험 감행과 11월 29일 미 본토를 가격할 수 있다는 화성 15형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때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 그리고 호혜적인 협력을 꾸준히 주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전략에는 원만하게 공조하면서도 무력 사용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조용하지만 완강하게 주장했다.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남북관계 급진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격언처럼 한반도 최악의 안보 위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풀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올림픽 개막 특사로 보냈다.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고 남북관계의 개선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기적적인 급진전이 이뤄졌다.

이는 운이 좋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꾸준한 노력에 국정원의 북한 통일전선부, 미국 CIA와

의 긴밀한 연락망 형성이 더해졌다. 남·북·미 정보부 간 원활하고도 긴밀한 공조가 작동돼 이룩한 성과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정세에서 자칫 고립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배려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카드를 잡았다. 수십 년간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다가 이제는 한국이 일정 부분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수준까지 성장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 간에 화해하고 협력의 기틀까지 형성했다. 수십 년간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일삼던 남북은 이제 정상 간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누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함께 그리게 됐다. 그리고 한나절의 만남이 짧다고 아쉬워하면서 헤어졌다.

남북 정상은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고 다시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으며 혹시라도 우발적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제거하자는 데 의지를 모았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제라도 단계적으로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해보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다시는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우리 특사단에게 다짐한 바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도로의 불편함 등 부족한 점을 시인하고 향후 유무상통의 협력을 하자고 다짐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향후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키자고 역설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 중국과 함께 평화체제를 수립하자고 합의했다. 상호 간에 더 이상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

“

북한의 핵 포기를 확실히 얻기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다. 핵 문제를 북·미에 맡겨두기보다 양측의 핵문제 해결 방안을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양측 간 합의안을 사실상 우리가 작성한다는 각오로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고 양측을 능동적으로 중재해야 할 것이다.

”

무소를 설치하며 과거 정상 간 합의사항들도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호혜적인 협력을 진흥해 자주적인 통일로 나아가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지향하게 됐다.

양측 정상은 신뢰를 돈독하게 다지고 핫라인도 설치했다. 문화 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고 대대적인 경제 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진솔한 태도와 언행, 판문점 선언의 내용, 그리고 양 정상 간에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큰 그림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핵을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과시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도 여전히 남아 있어 남북관계 진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연계돼 있다. 5월 중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확실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남북관계도 개선·발전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정상 합의안도 능동적으로 중재해야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이제까지의 성공에 자부심은 가지되 지나치게 고무되지 말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고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판문점 합의사항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북한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도 가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안들을 먼저 시행하고 성과를 내면서 보다 많

은 국민의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과거와 달리 대가 없이 비핵화 부분에서 일부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사실상의 핵과 핵 프로그램을 틀어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확실한 핵 포기 약속을 유도해야 한다. 핵 폐기 완료 시점을 명시하고 현재 가동 중인 핵과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의 가동을 동결하며 북한 핵 자산을 총체적으로 신고한 뒤 사찰과 검증을 받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미 행정부도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체제 안전을 북한에 보장해야 한다. 과거 북한의 핵 포기 유도에 실패한 데는 북미 양측 간 불신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선 양보로 얻으려는 미국의 일방주의도 한몫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확실히 얻기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다. 핵 문제를 북미에 맡겨두기보다 양측의 핵문제 해결 방안을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끊임없이 핵 문제 타협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또 수정·제시함으로써 양측 간 합의안을 사실상 우리가 작성한다는 각오로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고 양측을 능동적으로 중재해야 할 것이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옛 상처 지우고 평화를 꿈꾸다

이근하 | 위클리공감 기자

청명한 하늘 아래 연평도 어선에 매달린 깃발이 세차게 펄럭인다. 연평도 그리고 이곳 주민들의 염원을 상징하는 ‘서해 5도 한반도기’다. 어민들은 지난달 초부터 서해 5도 한반도기를 어선에 게양한 채 조업을 하고 있다. 흰색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와 독도가 그려진 기존 지도에 서해 5도가 더해진 이 깃발은 사뭇 달라진 연평도 분위기를 보여준다. 남북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섬, 연평도는 이제 평화의 섬을 꿈꾼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5월의 어느 날, 연평도민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꽃게잡이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보통의 섬마을과 다를 게 없는 일상이지만 연평도민들의 표정은 사뭇 새로웠다. 다소 평온해 보인다고나 할까. 그도 그럴 것이 11년 만에 조성된 남북 평화 분위기는 늘 안고 있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주는 듯했다. 주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연평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고대하고 있다.

연평도에서 나고 자란 김경희 씨는 “한시름 놓았다”며 정상회담 이전과 달라진 마음 상태를 전했다. 지난날의 상흔은 여전히 안고 있었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김 씨는 1999년 6월, 2002년 6월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을 모두 겪었다. 특히 민간을 상대로 한 첫 군사 공격, 연평도 포격 때는 집 바로 뒤편으로 포탄이 날아들어 집이 두 동강 났다. 잡은 꽃게를 저장해둔 창고는 정전이 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90대 노모는 그날 이후로 불안에 떨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다.

“연평도 주민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평생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연로한 탓에 육지로 나갈 수도 없던 어머니께 안정감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가슴 벅차했겠지만 우리는 그누구보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보따리 푸는 주민, 조업 기대하는 어민

집 안 한편에 꾸러놓은 피난 보따리를 풀어도 되겠다는 주민도 있었다. 김 모 씨는 엉성한 피난 보따리를 들고 인천으로 향했던 연평도 포격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하기만 하다고.

“그날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예요. 마을 곳곳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포격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언제 또 포탄이 날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죠. 훈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만일을 대비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보따리를 준비해뒀는데 이제 풀어도 되는 때가 오는 걸까요.”

대다수 어민들은 자유로운 조업활동을 염원하고 있다. 연평도는 접경지역인 탓에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고 일출과 일몰 이후에는 금지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어장 확장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평소 같으면 NLL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었을 중국 어선도 크게 줄어 기대감을 높였다.

연평도민 성도경 씨는 “그동안 연평도 주변 바다가 중국 어선들로부터 유린당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불안과 규제 속에

서 슬프게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어로구역이 실제로 조성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평화무드가 쪽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분위기 전환에 그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 모 씨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건 환영할 일이지만 어느 순간 없던 일이 될까 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연평도가 더 이상 한반도의 화약고로 대표되지 않도록 남북이 잘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고기 마음껏 잡아보는 게 소원”

“박수 쳤고 환호했다.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됐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시청하던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수산 자원을 씹어먹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참담함을 머지않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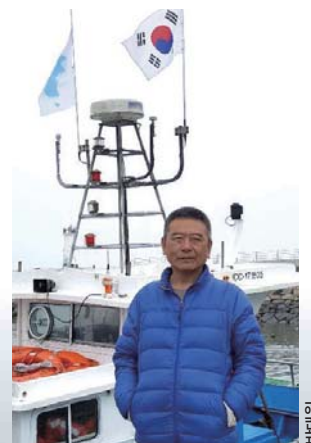
“우리 어민들은 참 힘겹게 살아왔어요. 야간조업은 불가능하고, 불법조업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NLL에 가서 고기 한 마리 마음껏 잡아보는 게 소원인데, 중국 어선들이 해역을 황폐화시키는 걸 바라보며 가슴 아프고 기가 막혔어요. 앞으로 NLL 일대의 평화수역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박태원 계장에 따르면 연평도는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어업 관련 종사자다. 그렇다 보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어업권 보장이 더욱 체계화됐으면 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시작점에 섰다고 생각해요. 거처야 할 과제도 많고, 선부른 기대가 물거품이 됐던 과거도 있고요. 그래도 서해 5도 주민의 오랜 소망이 이번 회담에 반영된 건 분명해요.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고, 긴장의 수역이었던 이곳이 평화의 수역으로 바뀌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1 한 연평도민이 어선에 매달린 서해 5도 한반도기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2 한 군인이 인천행 배에 오르는 주민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C영상미디어



박태원





이성민

조향사 이성민 퍼퓸라이퍼 대표

“이산가족들의 그리움 통일향수로 달래드렸죠”

장가현 | 위클리공감 기자

‘향은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라는 말이 있다. 익숙한 향을 맡으면 잊고 지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다. 코로 들어온 향기는 그날의 기억 뿐 아니라 감정, 분위기를 모두 한꺼번에 불러온다. 그만큼 후각은 우리가 가진 감각 중 기억을 불러오는 강력한 소환제다.

조향사는 향기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사전적 의미는 향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성민 조향사가 정의 내린 조향사는 사전적 정의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후각적인 경험은 제각각이다. 경험에서 형성된 후각 감수성도 다 다르다. 때문에 조향사는 많은 사람들이 향을 맡았을 때 공감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나 관념을 정의 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래서 이 조향사가 만든 향수에는 하나하나 사연이 깃들여 있다. 서울 종로구 누하동에 있는 이성민 조향사의 향수공방에도 비슷한 글귀가 적혀 있다.

‘기억해내지 않아도 그리워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후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벌써 65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헤어졌던 젊은이들은 이젠 흰머리가 지긋한 노인이 됐다. 그들이 떠난 고향, 두고 온 가족을 추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통일향수는 통일부와 이 조향사가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함께한 프로젝트다. 통일향수의 향수는 ‘고향 향(鄕)’ 자에 ‘물 수(水)’ 자를 쓴다. 노스텔지어를 향수로 달랜다는 뜻이다. 보통 향기가 기억을 남기지만 통일향수는 역으로 기억을 더듬어 고향의 향을 재현해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북한은 우리에게 가볼 수 없는, 미지의 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움을 향으로 재현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곳도 남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자란 곳에서 겪었던 추억이 하나씩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만 조금 차이가 날 뿐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어르신들에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통일향수는 이산가족의 기억을 원료로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향을 재현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노스텔지어가 담겼다. 함경도 이재순 할머니의 ‘명사십리 해당화 향’과 이주경 할아버지의 ‘한여름 산딸기 향’, 평안도 김형석 할아버지의 ‘대동강 술 향’과 김혁 할아버지의 ‘옥수수 향의 추억’, 황해도 송용순 할머니의 ‘해주 바다 내음’이다.

아픈 기억이 향수로 다시 태어나다

이재순 할머니의 사연이 담긴 ‘명사십리’는 원산사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갈마반도 바다 기슭에 있는 흰 모래터다. 명사십리의 해당화는 한반도에서 자라는 토종 장미다. 여리고 잔잔한 장미향을 머금은 해당화에는 이 할머니와 오빠의 추억이 담겨 있다. 함경도에 살던 할머니는 흥남부두에서 백 리는 떨어진 명사십리로 오빠와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당시 붉게 만발한 해당화가 탐스럽고 예뻐서 만지려고 다가가려는 찰나에 오빠가 꽃을 대신 꺾어줬다. 동생의 여린 손이 행여나 해당화 잔가시에 찢릴까봐 걱정이 돼서다. 동생을 아꼈던 오빠는 전쟁 이후 북에 홀로 남았고 지금은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1 이성민 조항사가 만든 '통일향수'는 다섯 가지 사연을 재료로 만들었다. | C영상미디어 24월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통일향수전'을 찾은 관람객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안타까운 다섯 가지 사연이 담긴 통일향수는 작년 11월 29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통일향수전’에서 처음 소개됐다. 오빠와의 추억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할머니는 ‘명사십리 해당화’ 향이 코에 닿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뿐 아니었다. 저마다 북녘 땅에 추억을 두고 온 어르신들 대부분이 눈시울을 붉혔다.

“어르신들이 향수 향을 맡으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하셔거든요. 조향사로서 보람 있는 작업 중 하나였어요.”

작년 11월 통일전망대, 12월 서울 중구 ‘시민누리공간 무교’에서 두 차례 소개된 통일향수는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4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통일향수전’이 열렸다.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시점이었다. 뜻깊은 순간 이산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는 프레스센터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역사에도 뜻깊은 일이잖아요. 남북한 모두에 의미 있는 일로 통일향수가 다시 한 번 조명받아 기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할 이유를 향수에 담긴 어르신들의 사연으로 전 세계에 알렸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들이 본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 전문가로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봄을 맞이할까. 북한 주민들은 3월이 오기 전부터 ‘2월은 봄입니다’라는 노래를 부른다. 남한에서 ‘봄의 전령사’인 벚꽃은 북한에서는 피지 않는다. 대신 살구꽃이 핀다. 이 모든 이야기는 동국대 북한학과 과방에서 알게 됐다.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다. 국내에 북한학도가 생긴 건 1994년. 지난 10년간 북한과 관련된 학과는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들에게 남북 정상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남다른 감격을 남겼다.



이진미/무용수

“이산가족 아픔 보듬을 수 있는 평화의 날이 오길”

저희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강화도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일생을 사셨습니다.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씀하셔서 저는 어릴 적부터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도 할아버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결국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북에 남은 가족, 친지분들을 수소문하고 이산가족 만남도 신청했지만 다 돌아가셨다는 소식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묘소를 북한이 보이는 곳에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강화도에서 북한을 향해 누워 계십니다. 이번 회담을 보며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북한 관련 전공은 줄어듦, 북한 연구도 많이 위축되었어요. 어렵게 찾아온 봄이 앞으로 평화협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은 통역 없이 정상회담을 나눌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도보다리에서 다른 수행원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 (24)

“남·북 서로에 대한 연구 깊어지길”

저는 오직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전공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는 평화와 협력,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천안함이나 연평도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천명하는 걸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부터 이번 정상회담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모든 순간과 과정이 드라마틱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싶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머지않아 이뤄질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는 북한 전문가들도 더 필요할 테니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남과 북의 민간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연구도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승훈 (24)



김지훈

이승훈

“아름다운 금강산에
꼭 가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독서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 땅굴로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죠. ‘어떻게 이 정도로 땅굴을 팔 수 있지?’ 신기하기도 했고요. 북한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고 결심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북한 관련 언론 기사들도 찾아보게 됐고요.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요. 큰 결심으로 만난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남북 간에 교류가 계속 이어져서 평화가 정착되면 좋겠어요. 체제와 이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류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요. 특히 개성공단이나 다시 문을 열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요. 언젠가는 개성에도 금강산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최연성 (21)



“약속 지키는 남과 북이 되길”

모교가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북한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북한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감동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악수하는 모습이 합성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예전과 같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합의사항을 지켜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걸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걱정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요. 언젠간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임희수 (20)

“판문점 회담 드라마 같았어요”

저는 군사, 안보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제연구동아리에서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북한 측 대표를 맡게 됐어요. 이후로 관심이 더 커졌고요. 지난 10년 동안은 남북간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서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 같아서 놀라워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향해서 웃으며 걸어오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사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논의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핵심협력이 계속됐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북 모두 약속을 지키는 데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제관계는 작은 충돌에도 급격히 냉각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의 이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유승우 (20)



제6회 통일교육주간

평화의 기쁨
함께 키우는 통일

2018. 5.21(월) ~ 27(일)

주요일정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5.21(월) 14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학생 통일 모의국무회의

예선: 5.19(토) 결선: 5.26(토)

전국 초·중·고 계기수업

5.21(월)~6.1(금)

통일 공감 마로니에 축제

5.24(목)~25(금) 대학로

통일교육주간 소감문 공모전

5.14(월)~6.15(금)

지역통일교육센터 전국 통일관 체험행사

주최 : 통일부·교육부





정훈이

2018 남북정상회담은 풍성한 회담 결과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거리를 낳았다.



평양에서 면 뽑는 기계까지 가져와서



만찬장에 올린 평양냉면도 당연히 화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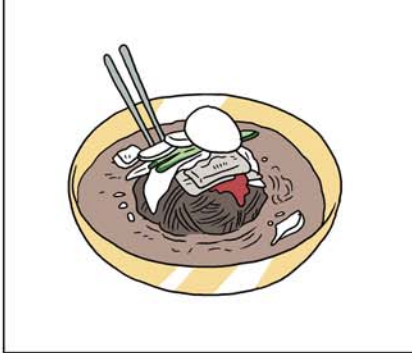
그날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국민들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전국의 평양냉면 가게들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평안도의 대표 음식인 '냉면'은 원래 겨울철 별미였다.



겨울에 수확한 메밀이 가장 질이 좋은데, 메밀은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반죽하고 면을 뽑기가 어렵다.



그래서 물게 반죽해 국수틀에 넣고 끓는 가마솥 위에서 바로 면을 뽑아서 삶는다.



삶은 면을 찬물에 행귀서 배추김치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는 냉국수가 바로 평양냉면이다.



여유가 있으면 꿩고기 등으로 우려낸 육수를 섞었고



더 여유가 있으면 채 썬 배도 얹고, 달걀 고명도 얹고, 삶은 돼지고기도 곁들였다.



평양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조선 후기에는 도성에서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외식 거리가 되었다.



문신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나오는 순조의 꼬마 임금 시절 이야기다.



야심한 밤, 임금이 달 구경을 하는데



무관들이 저자에 나가서 냉면을 사 왔는데



순조는 냉면을 사러 갔던 한 무관이 뭔가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조는 시위하던 무관들에게도 냉면을 나누어주었는데



수육을 사 들고 온 무관에게는 냉면을 주지 않았다.



토라진 꼬마 임금의 심술로 인해 냉면에 수육을 얹어 먹으려던 무관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

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이동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 연합뉴스

2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국민에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5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글을 붙이고 있는 시민. 50일간 18만705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해, 1718건의 우수제안을 채택했다. | 조선뉴스프레스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전화 설문 2만 6명, 시민대표단 47명의 공론조사를 진행해 '5·6호기 건설 재개, 원전 축소 추진' 권고안을 발표했다. 2017년 10월 1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렸다. | 연합뉴스

4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순서나 질문자는 없었다. | 연합뉴스



3



4





2



3

- 1 초반엔 서먹했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었다. 2018년 2월 20일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7~8위 순위 결정전 남북단일팀 대 스웨덴 경기에서 단일팀이 한수진의 골로 동점을 만든 뒤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18년 2월 25일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등贵宾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이 평창을 찾았다. | 연합뉴스
- 3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구 베를린시청 베어홀에서 열린 코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평화 최우선'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 연합뉴스
- 4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6월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4





2



3



4

1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제감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일자리 현장 방문이었다. 취임 이틀 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3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자리위원장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4 대통령은 탈핵·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어린이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유족인 김소형 씨를 위로하고 있다. 당시 행사에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 뉴스스

2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3일 제주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참석이었다. | 연합뉴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주인공이다. | 연합뉴스

3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6일 현충일에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 환자 및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 조국이 끝나지 기억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3

2



4

평화, 외교, 일자리, 민생, 소통 집중 문재인정부 1년, 다시 찾아온 봄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정부가 5월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출근길에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인증샷을 찍는 등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는 ‘소탈한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도 ‘소통’이 1위였다.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든든한 대통령’의 면모가 부각되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고,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국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외교, 일자리, 민생, 소통에 집중했다.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입장을 표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한 김여정 북한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현실화하며 남북 문제 당사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임기 1년 내 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킴으로써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24일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공연 관람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을 확보했으며, 이번 회담은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명실상부한 길잡이가 됐다.

올해 5~6월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넉 달 만에 대전환을 이끌어낸 이면에는 ‘평화 최우선, 전쟁 반대’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외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쁜 외교를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다각적 외교를 통해 북핵 위기 해결과 경제 번영의 기회를 열어 나가는 외교 전략을 폈다.

취임 초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단시일 내 주변국 정상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전인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계기를 이용해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문 대통령의 정책과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신진평 중국 국가주석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

담을 가진 데 이어, 12월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중 정상 간 우의와 신뢰 증진에 힘썼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인하고, 국빈 방중을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 정상화 및 실질협력 강화·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변국 정상외교 복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다변화·다원화를 추진했다. 2017년 8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과 ‘9개의 다리’ 전략을 발표했다. 9개의 다리 전략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베트남과 UAE를 방문하는 등 아세아·서남아·인도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

일자리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통령 첫 외부 일정도 일자리 현장 방문이었다. 취임 이틀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다. 올해 3월 말까지 전환 결정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 목표의 절반 수준을 달성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바탕을 구축했다.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최강 수준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입법도 추진했다.

민생·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체감 가능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비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지원책도 새롭게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진·화재 등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긴급 대응에 힘을 쏟았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에서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진력했다. 개방과 공개, 실용은 문 대통령의 소통 철학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정과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원전 폐쇄 여부 결정 등 국민적 요구와 의사를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 소통은 디지털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청와대 누리집은 시대에 발맞춘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온라인 국민 청원은 주목받는 공론 창구가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 높은 청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정 소통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전 세계 누구나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회담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내 손안의 정상회담’을 구현했다. ㉔

동행으로 행복한 사람들

‘동행으로 행복한 삶’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을 때 모두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부 포상과 올해의 장애인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장애인을 위한 공적 활동을 한 사람들과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들리지 않는 건 세상과 단절 청각장애인 귀와 입 되고 싶어”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이정자 관장

어릴 적 꿈은 고아원 원장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시력이 나쁜 친구가 안경을 쓰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원장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대답했다. ‘원장 어머니’라는 생소한 단어에 적지 않게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고아원 원장이 돼서 안경도 사줄 거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거야.’ 수많은 농아인의 귀와 입이 된 지 수십여 년, 어느덧 살아온 시간의 절반을 장애인과 함께했다. 이정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은 그 모든 순간을 가슴 벅차 했다.

“어떻게 하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지 늘 관심을 가져왔어요. 대입 때는 충청남북도에 사회복지학과가 없어서 사회학을 전공했지만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적합한 인력을 보내달라’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제안에 저를 추천해주셨어요. 면접을 거쳐 대전 지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장애인의 취업을 알선하는 업무를 처음 맡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지금보다 강했던 터라 장애인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정자 관장이 장애인은 어떤 직무에서 어떻게 일



할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때문이었다. 장애인재활협회 명함을 들고 가면 ‘돈을 달라’는 뜻인 줄 오해하고 회사 입구에서부터 차단당했던 일도 부지기수였다. 폭우와 폭설이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우산을 쓴 채 정문에서 기다리는 진심을 보였고 갖은 노력 끝에 조금씩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1983년 한 해에만 100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었다.

1997년부터는 오로지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복지 활동에 집중했다. 그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앞을 못 보는 게 사물, 사람과의 단절이라면 들리지 않는 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할 때가 상당한데 그 고충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이 일부 복지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더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사회적 배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을 실어주고 싶은 이유예요.”

복지관 최초 수화영상도서관 개관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시작해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까지 여러 기관을 거치는 동안 흔히 말하는 ‘좋은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다. 오히려 소속기관이 과도기를 겪을 때 앞장서 힘을 보탰고, 그러한 시간이 쌓여 올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게 됐다. 그중에서도 4년째 몸담고 있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이 관장이 지향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청각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농아인에게 보다 개선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우리나라 복지관 최초로 수화영상도서관을 개관한 것은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다.

“수화영상도서는 일반 책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수화로 읽어주는 형태의 도서입니다. 일종의 대체 도서인 셈이에요. 지난 7년 동안 2000여 권이 제작됐어요. 농아인의 학습 수준을 높여주는 동시에 농아인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영상 대부분이 농아인의 손끝에서 나왔거든요.”

더불어 복지관은 코다(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들



1 이장자 관장이 훈장증을 든 채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2 농아인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장과 농아인들 | 이장자

이 시각장애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교육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관장은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처럼.

이 관장은 퇴임 이후에도 청각장애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아주 작은 규모의 공간이더라도 그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방을 만드는 게 꿈이다. 청각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또 그림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돼줌으로써 농아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목표다.

“다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일을 하느라 아이들의 성장기를 온전히 돌봐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릴 때도 있지만, 성인이 된 아이들이 이런 제가 자랑스럽다고 해요. 지난해 회갑을 맞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문득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약속할 수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끝까지 달릴 겁니다.” ⑥



“내 목소리, 시각장애인과 정보화 세상의 연결고리”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김병호 씨

새파랑던 하늘이 까매졌다. 밤이 된 것도 날씨가 어둑해진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희미해 보이는 세상에 들어섰다. 곧 밝은 곳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느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 갇혀버렸다. 두 눈으로 담던 모든 것을 두 귀로 담아야 했다.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소리는 생각 이상의 존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기관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다.

김병호 삼성전자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 과장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 빛조차 감지할 수 없는 지금이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온전한 시력을 가진 비장애인이었다. 동시에 네 살배기 아들과 첫들을 앞둔 딸아이를 둔 젊은 가장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자신이 쓰게 될 거라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몸에 피로를 느끼면 충혈이 되곤 했어요. 약을 먹고 점안하면 조금 나아지다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같은 증세가 나타났어요. ‘치료 받으면 나아지겠거니’ 여겼는데 어느 순간 시력이 두드러지게 나빠졌어요. 컴퓨터 화면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시력을 잃는 ‘포도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이전처럼 생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휴직계를 내고 치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애당초 치료 목적이 시력 회복이 아닌 상태 유지였을 정도였다. 2년 동안 치료에 매진했지만 장애를 안게 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결국 서른 하나에 모든 시력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좌절할 시간은 없었다. 두 자녀와 아내를 둔 가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였다.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숙 교육센터를 찾았다. 보행은 말할 것도 없

고 한글로 점자를 익히는 등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을 새롭게 배워나갔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됐다. 가장 잘했고, 잘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일도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되니 달라졌다.

“과거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기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는 게 주된 역할이었어요. 시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초재활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죠. 대신 잘할 수 있는 걸 찾았는데 정보화 교육이었습니다. 합숙 교육을 하면서 소리만으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체험했거든요.”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주도

김병호 씨는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는 곳이 극히 드물었다고 기억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휴직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사회공헌 아이템으로서 꽤 가치 있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게 1997년 삼성전자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실. 그곳에서 그는 정보화 교육 강사, 시각장애인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연결고리를 맡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컴퓨터 교실의 형태도 달라졌다. 오프라인 형태였던 교육센터는 온라인 누리집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 문서 작성 프로그램 과정부터 인터넷 정보 관리자 자격 대비까지 다양한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김 씨는 이 모든 강의를 직접 녹음하고 누리집(anycom.samsunglove.co.kr)에 게재해 시각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80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이 누리집을 활용했다.

그는 정보화 교육 강사를 비롯해 사내 여러 곳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사내 봉사단 ‘스마트 앤젤’을 꾸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스마트폰 활용에 취약한 장년층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 봉사를 해오고 있다. 또 삼성 스마트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비장애인 개발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UX(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됐다. 2014년 출시된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는 김 씨가 직접 개발 자료와 사용자 테스트에 참여한 제품이다.

“제품 출시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써보고 불편한 점을



1 녹음실에서 작업 중인 김병호 씨
| 김병호
2 김병호 씨는 ‘올해의 장애인 상’을 수상했다. | C영상미디어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회사는 그 내용을 개선 사항에 반영하고요. 직장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소리가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장치나 시선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예전에는 장애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정 공간에서 가족들과 분리돼야 했는데 이제는 통합 서비스로 제공돼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다만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비장애인 개발자들이 장애인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고, 장애인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요. 세상은 고도화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또 다른 벽을 마주할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찾아야겠죠?”



1 커피 크림이 흘러넘치게 플레이팅 하는 스카치노 | C영상미디어
2 3 4 5 휘핑크림 위에 그림을 입힌 커피 크리마트 | 이강빈

CNN, WP에도 소개된 아티스트 바리스타 이강빈 “‘크리마트’ 하면 한국 떠올리게 만들고 싶어요”

이근하 | 위클리공감 기자

커피 위 휘핑크림을 하얀 도화지 삼고, 뾰족한 도구를 붓 삼아 그림을 그려낸다. 쓱쓱 움직임 몇 번에 완성되는 그림부터 정교한 손놀림이 더해진 그림까지. 이강빈 바리스타가 건넨 커피 한 잔은 음료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예술작품이다.

이강빈 바리스타의 커피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먹나.” 눈으로 먼저 마시고 입으로 넘기는 두 번의 즐거움이 이 커피의 묘미다. 이강빈 바리스타가 개발한 커피 ‘크리마트’다.

얼핏 크리마트는 우유 거품으로 커피 위에 그림을 그리는 ‘라테아트’와 같이 이해될 수 있는데 결코 아니다. 라테아트는 기술이지만 크리마트는 말 그대로 커피 메뉴다. 오직 차가운 커피 위에 두

터운 크림을 쌓고 식용색소로 그림을 입힌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커피가 식어 맛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1000잔도 훨씬 넘는 크리마트를 만들었다. 잔 수만큼 담은 그림과 이야기도 참 많다. 누구나 다 아는 명화나 캐릭터를 그려넣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추모하기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기록하기도 한다. 사회 그리고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커피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싶어서다. 해마다 4월이면 세월호와 노란 리본을 그리듯이, 자신의 커피를 전하는 순간이 행복하고 커피에 의미를 더하면 그 순간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커피 공부에 한창이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매장에 혼자 남아 음료를 제조하고 마셔보고 있었어요. 아인슈페너를 만들었는데 옆에

있던 딸기 시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에 흘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시럽으로 그림이나 끼적여볼까 한 게 벚꽃나무가 됐고 그게 크림아트 개발의 발단이었어요.”

그는 “크림아트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커피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림마다 난이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는 행위 자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크림아트 강의를 요청하는 직장인 워크숍도 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 인텔사 직원들에게 크림아트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어쩌면 커피 예술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이유다.

“아메리카노 하면 미국, 에스프레소 하면 이탈리아를 연상하는 것처럼 크림아트(Cream art) 하면 한국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외국을 다니면서 크림아트를 알리고 있는데, 이미 미국과 영국, 러시아, 일본 등에는 크림아트가 알려져 있고 또 직접 배우고 싶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도 꽤 많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강빈 바리스타에게 커피는 그 자체로 예술이다. 대개 음료는 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커피는 예술’ 또는 ‘커피 예술’이라는 표현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잔에 담긴 음료를 보고 어느 누가 ‘예술’이라고 하겠냐는 게 그의 이야기다. 시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커피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크림아트를 조금 변형시켜 휘핑크림을 세워서 만든 입체적인 커피, 3D 커피가 대표적이다. 일부러 커피 크림이 흘러넘치게 플레이팅 하는 스카치노도 있다.

추억할 수 있는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몇 해 전만 해도 커피를 마시기 위해 한 시간이나 기다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기다려서라도 그곳의 커피와 카페의 분위기를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커피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크림아트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고민한 결과물이다.

“저는 바리스타와 아티스트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스타는 음악과 패션, 음식 등을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단 순히 커피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 따지면 자판기가 완벽해요. 하지만 바리스타는 자신이 만든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어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녹일 수 있는 감정이 다양하죠.”

어느덧 그는 CNN, 〈워싱턴 포스트〉 등에도 소개되는 소위 ‘유



이강빈 바리스타가 ‘크림아트’를 만들기 위해 도구를 집어 들고 있다. | C영상미디어

명 바리스타’가 됐다. 경북 상주 작은 마을에서 자랐던 터라 카페조차 생소했던 어린 소년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지 10년이 지났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일주일 중 6일을 하루 열 시간 넘게 일하면서 그만한 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제 후배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특별한 커피를 만들어서 커피의 가치를, 바리스타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이강빈의 커피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느냐고.

“추억할 수 있는 커피면 좋겠어요. 보고 마신 그날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커피요.” ㉞



최고 명창들만 올랐던 국립극장 완창 무대 국악계 아이돌이 ‘떴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커다란 무대 위, 고수의 북장단을 타고 누군가의 쇠소리가 울려 퍼진다. 온몸으로 끌어올린 듯 흔들림 없는 그 소리에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온갖 감정이 묻어난다. 중후한 연배의 소리꾼이 뱉어내는 소리가겠거니 했는데 웬걸, 곱상한 얼굴의 청년이 판소리 가락을 읊는다. 명창을 꿈꾸는 젊은 소리꾼 김준수 씨다.

소리꾼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스물여덟 청년, 우리 소리를 해온 지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지난 3월에는 세 시간 남짓한 시간을 혼자 이끄는, 생애 첫 완창 판소리를 해냈다.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연기까지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더욱이 당대 최고 명창들만 올랐던 국립극장 완창 무대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으리라.

“소리꾼에게 완창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자 계기입니다. 모든 소리꾼이 도전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큰 공부가 돼요. 공연 일자가 다가올수록 더해지는 부담감 탓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큰 성취감을 남긴 경험이었습시다. 큰 산을 하나 넘고 또 다른 산으로 향하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선보인 소리는 ‘수궁가-미산제’였다. 상하청을 넘나드는 음과 시김새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토끼가 별주부의 땀에 빠져 용궁에 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다. 김 씨가 판소리에 입문한 뒤 스승인 박금희 명창으로부터 가장 먼저 배운 소리이기도 하다. A4 용지로 40쪽이 넘는 가사를 술술 자연스레 읊는 그의 모습에 벅감가는 그날의 또 다른 진풍경은 관객석이었다. 20~30대가 관객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인기 대중가수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준수 씨는 ‘국악계 아이돌’로 통하는 국립창극단 대표 스타 소리꾼이다.

혹자는 ‘수려한 외모가 인기 이유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무기는 탁월한 실력이다. 대학교 재학 시절인 201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했다. 30년 만의 최연소 입단이었다. 입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극 ‘서편제’의 어린 동호 역으로 첫 주연을 맡았고 ‘배비장전’, ‘메디아’, ‘적벽가’ 등 다수 작품에서 주역 배우로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힘입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다. 요즘 말로 꽃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소리꾼으로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국악 동요를 곧잘 따라 부른 덕분에 당시 지역에서 열리는 초등학교생 전통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그곳에서 한 누나가 부르는 ‘춘향가’의 ‘갈까부다’ 대목을 듣고 소리에 반했다. 또래 친구들이 흥얼거리는 대중가요와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다.

“사람이 힘을 쥐서 뽑아내는 소리 중 그렇게 애절하고도 슬픈 건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음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무슨 음악이냐고 물으니 판소리라고 했어요. 소리꾼이 되겠다고 결심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전남 강진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에게 소리 공부는 사치였다. 풍족하지 못한 환경이라 명인을 사사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부모님은 미래가 불투명한 예술을 하겠다는 아들을 말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또한 집안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때 버팀목이 된 건 담임 선생님이었다. 일찍이 그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줬고 그가 정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는 판소리를 시작한 이후 단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다. 여름과 겨울에는 산에 들어가 합숙 훈련을 받았다. 소리와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기억할 정도였다. 그는 “전남예고 시절 매일 정규 수업보다 한두 시간 먼저 등교해 혼자 연습한다고 해서 알람시계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했다.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헬레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김준수 씨(왼쪽). 지난 3월 김 씨는 당대 최고 명창들만 올랐던 국립극장 완창 무대를 펼쳤다(오른쪽). | 국립극장



“최근에 고교 시절 국악 담당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국악을 공부하는 후배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어떻게 먹고살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걱정을 했고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꾸준히 소리를 해나가다 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리꾼이 되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리꾼 돼야죠”

국립창극단원이 되고 4년이 흘렀다. 그사이 김 씨에게는 많은 작품이 쌓였고 무대에 임하는 자세에는 노련함과 책임감이 더해졌다. 이전에는 오로지 ‘연습한 내용을 실수하지만 말자’는 심정으로 무대에 섰다면 이제는 관객의 눈을 바라보며 호흡하고 있다고 했다.

주어지는 배역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굳이 그 계기를 묻는다면 ‘트로이의 여인들’ 속 여성 역할인 헬레나를 맡고 나서부터다. ‘여장 연기를 하고 나면 반감을 얻지 않을까’란 걱정은 괜한 기우였다. 오묘하면서도 매력적인 연기는 호평을 얻기에 충분했고 그 자신도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늘어났다. 이제 소리를 향한 그의 열정은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시도로 진화해가고 있다.

“판소리는 여전히 대중화된 소리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각광받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한 창극을 똑같이 반복하는 형태로 공연이 이뤄졌다면 언젠가부터 현장 관객과 소통하면서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공연이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관객들이 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통음악이라고 해도 다

양한 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가 여러 장르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퓨전 에스닉 밴드 ‘두 번째 달’과 함께 재해석한 ‘판소리 춘향가’가 대표적이다. 북이 아닌 클래식 악기에 맞춰 부르는 판소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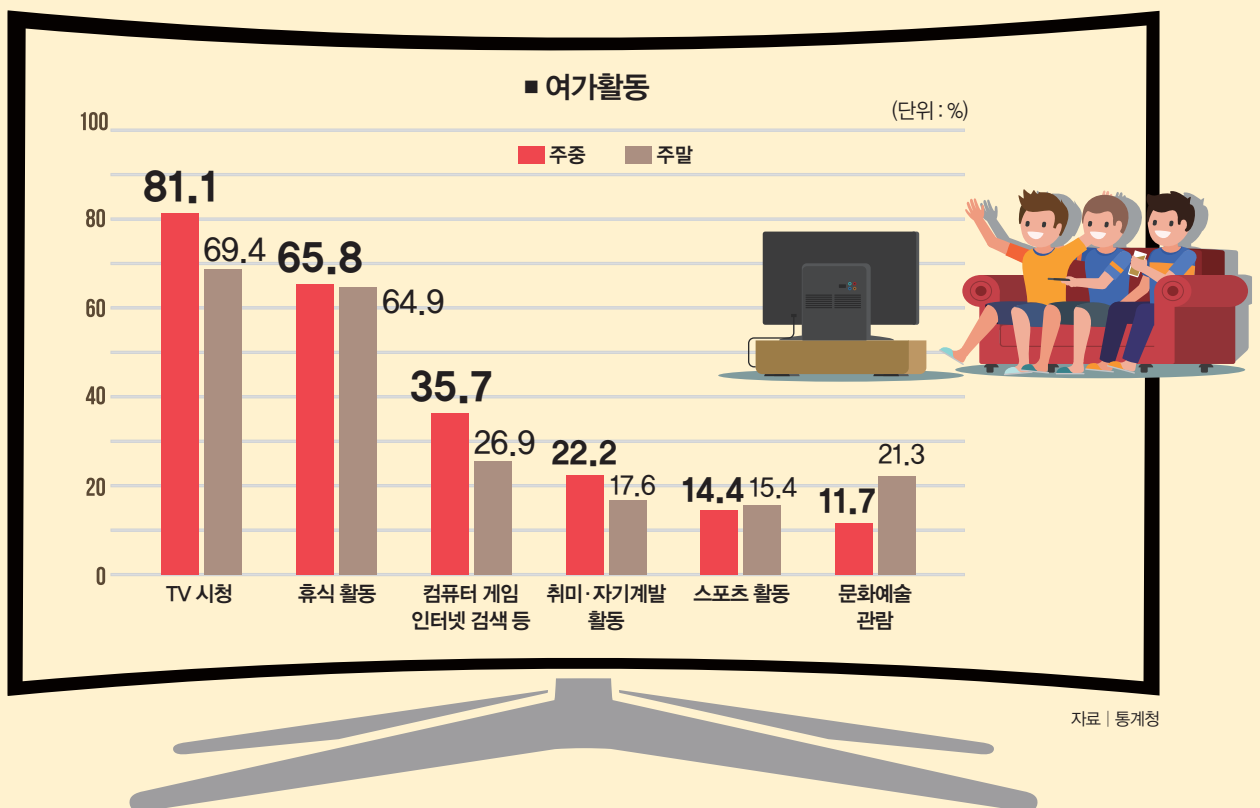
“제가 젊은 소리꾼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건 새로운 장르에도 전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 하나만 들고 판소리를 했다면 이 정도의 관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색다른 판소리를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장르와 결합한다고 해서 판소리의 고유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만약 가요를 판소리처럼 부르는 것처럼 장르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음악이 되겠죠.”

한편에서는 김 씨의 활발한 움직임이 소리꾼이 아닌 다른 길로 접어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는 “소리꾼의 길을 묵묵히 걷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소리라는 이유에서다.

“제 목표 중 한 가지는 판소리의 매력을 더 많은 대중, 특히 국악에 관심이 없던 10~20대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 전통음악을 우리 젊은이들이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 일은 젊은 소리꾼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해요. 대개 판소리 하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앞세워 외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춘향가’의 암행어사 출두 장면을 보면 단전에서 뽑아올린 발성이 록 음악처럼 가슴을 뺨 뚫어주고, ‘흥부가’ 휘모리장단에 맞춰 박타는 대목은 신나는 랩 같지 않나요.” ㉔

희망 여가활동은 관광, 현실은 TV보기

장가현 | 위클리공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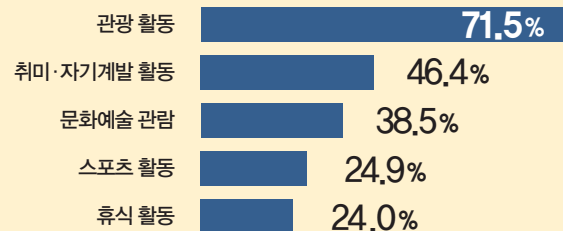


최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화두로 떠올랐다. 워라벨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동 중 여가 활용을 빼놓을 수 없다. 여가 활용으로 활력을 찾으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의욕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주로 즐기는 여가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주중이나 주말에 즐기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휴식',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계발 활동'이 이었다. 주중에는 주말보다 TV 시청(81.1%),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35.7%)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았고, 주말에는 주중보다 문화예술 관람(21.3%)과 관광(19.2%)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가시간 활용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7.2%로 2015년보다 1.2%p

■ 희망 여가활동



증가했다.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시간 활용에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하고 싶은 활동으로 관광(71.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를 취미·자기계발(46.4%), 문화예술 관람(38.5%)이 이었다. ㉠



‘밥 잘 사주는 영자 누나’ 엄선 휴게소 미식회 베스트 5

유슬기 | 위클리공감 기자

바야흐로 고속도로 미식회다. 목적지는 휴게소다. 졸음을 깨우거나 급한 불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 휴게소에 들른다. 경부고속도로 초입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는 말죽거리소고기국밥을, 안성휴게소에서는 소시지와 떡이 꽂힌 소떡소떡과 맥반석에 구운 반건조 오징어를 먹어야 한다. 이 회동의 호스트는 방송인 이영자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고, 음식에 대한 느낌을 전하는 것만으로 보는 이들의 미각을 일깨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양재 만남의 광장에 있는 말죽거리소고기국밥을 커다란 가마솥에 이를 동안 끓여낸다. 이영자는 음식의 맛뿐 아니라 제조 과정까지도 숙지하고 있다. 그렇게 폭 우려낸 말간 국물에 알맞게 익은 우거지와 콩나물을 얹어 먹어보자. 그건 그의 말대로 “아픈 사랑의 기억이 깨끗하게 잊히는 맛”이다. 이영자와 그의 매니저 송성호가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은 늘 동행하는 매니저의 시점에서 연예인을 관찰한다. 그의 주요 업무는 스케줄 관리와 ‘먹바타’ 역할이다. 이영자가 정해준 맛집

에 가서 그가 지시해주는 대로 음식을 시키고 시식도 한다. 그의 지시에 따르면 핫도그는 옷을 얇게 발라 튀기고, 만두는 단무지를 얹어 먹는다. 보는 동안 이영자의 먹바타가 되는 건 매니저만은 아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영자가 제시한 ‘맛동여지도’를 따라 길을 떠났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음식점 협찬이 없다. 강성아PD는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위해 이 원칙을 지킨다. 3.3%의 시청률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시청률 7%를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청률 견인의 1등 공신은 역시 ‘이영자의 고속도로 미식회’다. 서산 휴게소 어리굴젓백반, 보성녹차휴게소 꼬막돌솥비빔밥, 횡성휴게소 횡성한우더덕스테이크 등은 실제로 방송 이후 해당 메뉴의 판매율이 5배 이상 늘었다. 그의 맛집 리스트가 소중한 이유는, 이영자가 ‘세월’이라는 검증을 거친 리스트를 소중하게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맛 묘사를 듣고 있으면 혀와 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풍성해진다. 각 음식을 향한 경이와 찬사, 그 충만한 행복감이 전해져서다. ㉠

이영자가 추천하는 휴게소 메뉴



1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말죽거리소고기국밥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야외로 향하는 인파로 만남의 광장은 북적였다. 초입에서부터 ‘말죽거리국밥’을 소개하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다. 식당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서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매표원인 김나리 씨는 방송 이후 국밥 주문량이 압도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오후 3시쯤 준비된 국밥이 모두 소진되기도 한다. 국밥 완판이다. 실제로 주말에 하루 142그릇 정도 팔리던 국밥은 방송 이후 582그릇이 팔렸다. 구릿빛 뇨그릇에 밥과 소고기국, 어묵볶음과 미역줄기볶음, 배추김치 등이 나오는 말죽거리소고기국밥의 가격은 6500원이다. 밥은 갓 지은 듯 고슬고슬하고 국물은 적당히 뜨거워서 먹기 좋다. 국물을 먼저 후루룩 먹으니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국물의 온기가 속을 개운하게 해준다.



2 안성휴게소, 소떡소떡과 맥반석오징어구이

소떡소떡은 소시지와 떡볶이, 또 소시지와 떡볶이를 번갈아 끼운 꼬치 음식이다. 하루 66개 팔리던 소떡소떡은 방송 이후 374개가 팔렸다. 안성휴게소에서는 한쪽에서는 맥반석구이 반건조 오징어를, 다른 한쪽에서는 소떡소떡을 판다. 기름에 한 번 구운 뒤 따뜻하게 보관한 소떡소떡은 식감이 좋다. 소시지는 통통하고 떡은 쫄깃하다. 이영자의 말대로 꼬치를 옆으로 들고 떡과 소시지를 갈비 뜯듯 한입에 먹어줘야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반건조 오징어는 촉촉하다. 몸통뿐 아니라 다리도 살집이 두둑하다. 한 마리로 두세 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질뿐 아니라 양도 만족스럽다.



3 보성녹차휴게소, 꼬막돌솥비빔밥

휴게소 음식의 생명은 접근성이다. 제철에 나는 지역 특산물을 빠르게 공수할 수 있어서 신선도가 보장된다. 남해 꼬막은 영양 창고이니 꼭 먹어봐야 한다. 보성녹차휴게소의 꼬막비빔밥은 살이 올랐을 때 공수되어 막 찢 꼬막이 올라온다. 양념과 부추, 뜨거운 밥을 넣고 비벼 입에 ‘좌~아아악 한 입 넣으면’ 그의 표현대로 “오늘 떠나도 여한이 없는” 맛이 완성된다. 이영자는 이때 밥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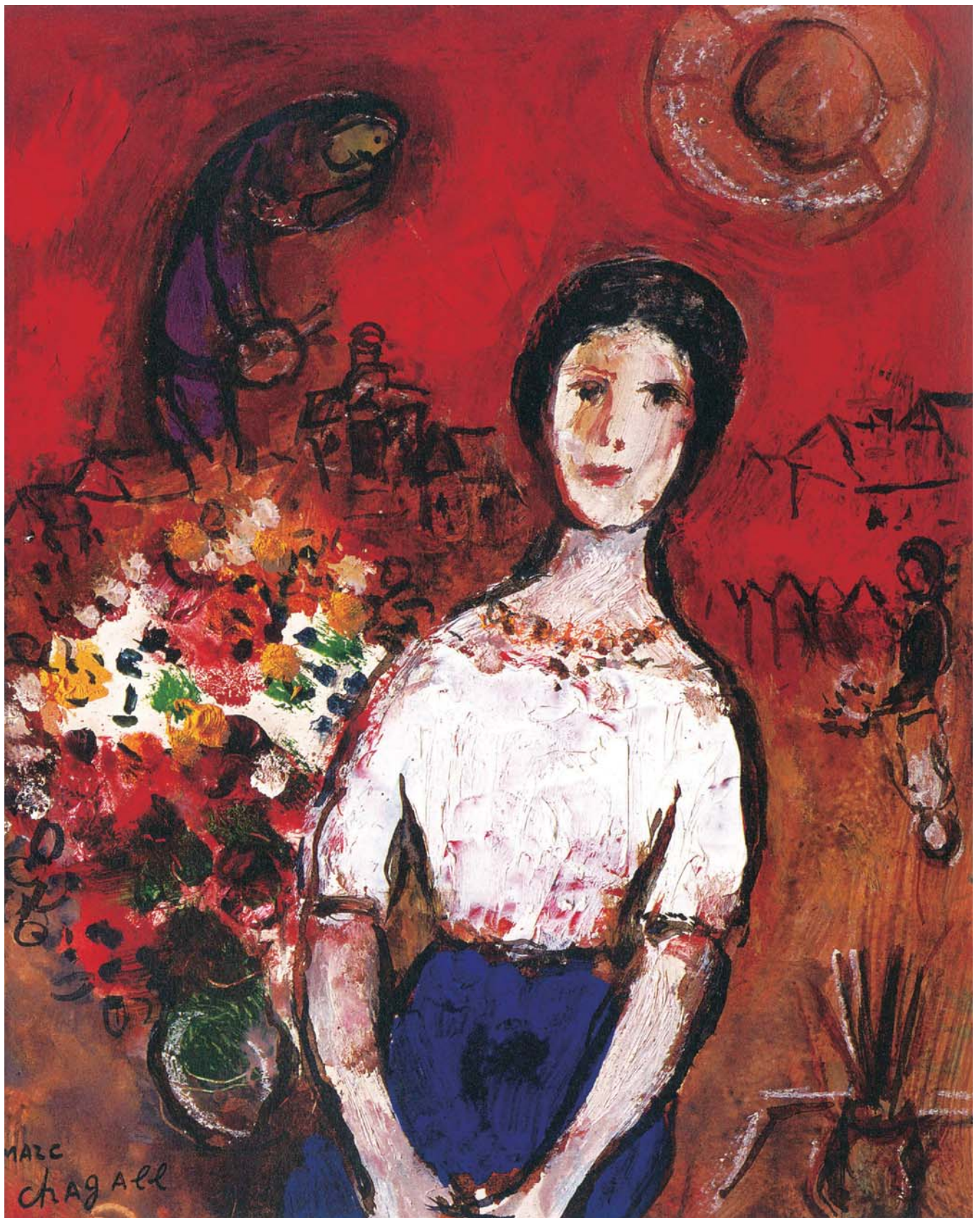
4 황성휴게소, 황성한우더덕스테이크

이영자의 휴게소 음식 월드컵 결승에 오른 메뉴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에서 시청자 2400명에게 가장 먹고 싶은 휴게소 음식을 물었을 때는 1위를 차지한 음식이기도 하다. 황성 한우를 이용해 만든 스테이크는 황성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 여기에 더덕까지 더해지면 맛과 영양을 둘 다 잡은 건강식이 된다. 이 음식에 대해 이영자는 “소 한 마리를 다 먹은 느낌이다. 부자 된 느낌, 성공한 느낌이 드는 음식”이라고 소개했다.



5 서산휴게소, 어리굴젓백반

이영자의 휴게소 음식 월드컵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음식이다. 서산의 신선한 굴을 젓갈로 만들어 ‘거의 생물 같은’ 느낌을 준다. 휴게소에서 권하는 특별한 먹는 방법이 있다. 먼저 따끈한 밥을 크게 한 수저 뜬다. 어리굴젓 한 젓가락을 밥 위에 올린다. 그 위에 김을 한 장 올려 입으로 가져가면 된다. 서해바다가 올라온 듯한 백반을 먹으면 풍성한 맛과 함께 속이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는 이영자는 서산 어리굴젓백반에 다음과 같은 영상편지를 남겼다. “어리굴젓아, 네가 있어서 서산을 빛나게 하는구나. 네가 없었다면 무엇이 서산을 알렸을까. 네가 있어 정말 빛나는구나. 너를 품으러 곧 갈게.”



바바의 초상 Marc Chagall, Portrait de Vava (1953-56) oil on cardboard, Private Collection © ADAGP, Paris – SACK, Seoul, 2018, Chagall ®



1



2

12 전시장 내부 모습 | C영상미디어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 특별전 ‘영혼의 정원’

장기현 | 위클리공감 기자

상징적인 이미지, 독특한 화면 구성, 아름다운 색채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마르크 샤갈의 작품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전시 규모는 역대급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작품을 포함해 샤갈의 인생을 총망라한 260여 점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특히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컬렉터들의 개인 소장품을 포함해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샤갈의 작품 25점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샤갈의 작품전이라는 점 외에도 관람객의 눈길을 끈 것이 있다. 배우 유인나가 오디오가이드로 재능 기부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라디오 DJ 시절 ‘꿀디’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던 만큼 나긋하고 편안한 목소리가 작품에 몰입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시가 사흘째인 4월 30일, ‘영혼의 정원展’이 열리는 M컨템포러리 로비에는 오픈 시간인 11시가 되기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꽤나 붐볐다. 이번 전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마르크 샤갈은 회화, 소묘, 판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화가다. 피카소, 마티스, 미로, 고갱 등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작품 활동을 했던 80여 년 동안 인류의 예술사에 중대한 공헌을 한 수많은 걸작이 탄생했다. 샤갈이 위대한 화가로 칭송받는 이유는 독특한 작품 세계 때문이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추상화로 대변되는 야심찬 실험을 추구한 데 반해 야수파와 입체파의 아이디어를 흡수하면서 구상화가 가진 힘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샤갈의 작업실을 재현한 '샤갈의 공방'에서 관람객이 직접 판화 작업을 해볼 수 있다.
234 샤갈의 작품이 벽면을 가득 채운 전시장 내부 모습
| C영상미디어

전시는 다양한 소재를 다룬 작가의 세계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샤갈이 주로 다뤘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4부로 구성됐다. 또한 샤갈의 작업실을 재현해 그가 했던 판화 작업을 따라해볼 수 있는 '샤갈의 공방',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인터랙티브'도 마련됐다.

유인나 목소리 재능기부

1부 '꿈, 우화, 종교'에서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샤갈이 러시아 혁명을 겪은 후 파리로 왔던 20대부터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시간을 지나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50대까지, 샤갈의 초·중기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 원색을 활용한 동판화로 표현한 '성서' 시리즈와 채색 에칭 기법을 활용한 '라퐁텐 우화' 시리즈가 주를 이룬다.

2부 '전쟁과 피난'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의 10월 혁명 등 샤갈의 내면을 활권 전쟁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샤갈은 전쟁으로 경험한 공포를 흑백으로 표현했다. 친구이자 작가 앙드레 말로가 쓴 <대지에서>의 삽화 작업을 보면 샤갈이 느꼈던 전쟁의 이미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말로의 책에 수록된 마지막 삽화에는 전쟁이 끝난 후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소중히 여긴 작가의 의지가 돋보인다. 전쟁 속에서 보여준 '희망'은 샤갈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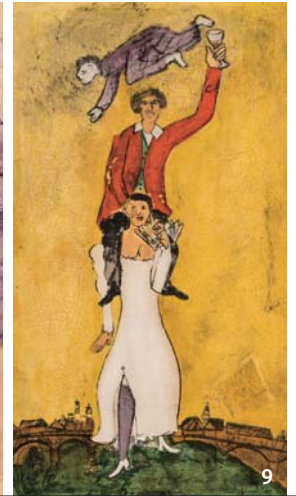
5 러시아 마을 Marc Chagall, Russian village (1929) oil on canvas, Private Collection © ADAGP, Paris – SACK, Seoul, 2018, Chagall ©

6 붉은 배경의 꽃다발 Marc Chagall, Bouquet de fleurs sur fond rouge (1970 ca.) oil on canvas, Private Collection © ADAGP, Paris – SACK, Seoul, 2018, Chagall ©

7 보라색 수탉 Marc Chagall, Le Coq Violet (1966–72) oil, gouache and ink on canvas, Private Collection © ADAGP, Paris – SACK, Seoul, 2018, Chagall ©

8 시인 아폴리네르 Marc Chagall, Apollinaire (1976) colored lithography, Private Collection © ADAGP, Paris – SACK, Seoul, 2018, Chagall ©

9 와인잔을 든 이중 초상화 Marc Chagall, Rituel pour le double portrait au verre de vin (1976) colored lithography, Private Collection © ADAGP, Paris – SACK, Seoul, 2018, Chagall ©



3부 ‘시의 여정’에서는 화가뿐 아니라 시인으로 활약한 샤갈의 작품이 소개된다. 1950년대 이후부터 말년까지 초현실주의풍의 후기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프랑스 프로방스에 거주하면서 겪은 작가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다. 작가가 자주 다뤘던 서커스, 종교, 우화, 꿈, 꽃 등 주제는 다양하지만 작품 곳곳에 삶에 대한 희망이 배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4부 ‘사랑’은 샤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샤갈의 영원한 동반자 ‘벨라’, 벨라가 죽고 난 후 만난 ‘바바’와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생전 샤갈은 “벨라는 나를 예술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벨라는 샤갈의 뮤즈답게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바바 역시 마찬가지다. 벨라가 죽고 난 뒤 실의에 빠진 샤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가 바바다. 바바를 만난 이후 샤갈의 그림은 한층 더 밝아지고 색채도 화려해졌다. 벨라와 바바 두 사람이 준 사랑은 샤갈의 생과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두 여인의 헌신적이고 성숙한 사랑은 샤갈의 작품 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전시장 곳곳에는 샤갈의 작품뿐 아니라 생전에 했던 말이 함께 소개된다.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침실 창문만 열었는데 푸른 공기, 사랑, 꽃들이 그녀와 함께 들어왔다” 같은 문구를 보면 생의 마지막까지 희망과 사랑을 놓지 않았던 샤갈의 따뜻한 영혼이 관람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

전시 정보

기간 8월 18일까지

장소 M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요금 성인(만 19세 이상) 1만 3000원,

학생(중·고·대학생) 1만 원,

어린이(만 3~12세) 8000원

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입장 마감 오후 7시)

휴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문의 02-3451-8199



나만의 공예를 만나는 1주일 '2018 공예주간' 일상의 가치 높이고 아름다움 담는다

강은진 | 위클리 공감 객원 기자



공방 전성시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경우 인사동을 중심으로 북촌과 서촌, 홍대나 상수, 연남동의 작은 골목들마다 크고 작은 공방들이 많이 생겨났다. 나무를 깎아 보석함을 만들고, 가죽을 잘라 가방을 만든다. 고급스런 린넨 천으로 영화에 나올 법한 앞치마를 만들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장식한 빗갈고운 비단 이불도 있다. 가성비 넘어 나를 만족시켜주는 '가심비(價心比)'를 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는 요즘 분위기 속에 다시금 공예가 재평가되고 있다. 만든 이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공예품은 모두가 아닌 나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생활용품이다. 그러나 공예라고 하면 어딘가 고리타분한 인상이 들고, 실용성만 따지고 본다면 만만찮은 가격에 진입장벽이 높은 게 현실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예가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 사람들을 향해 공예가 먼저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공방과 전시장 밖

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났다. 거리마다 화사한 별이 가득했던 5월 첫째 주, 서울 인사동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도심 곳곳에서 일주일간 열렸던 사상 첫 공예 축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뜻깊은 개막식으로 시작된 첫 공예 축제

5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만의 공예를 만나는 일주일' 공예주간(크래프트위크)이 열렸다.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고 즐겁게 가꾸어주는 공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 보다 가까운 공예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2018 공예주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진흥원의 'KCDF갤러리'와 옛 서울역사에 문을 연 '문화역서울 284'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방과 공예점들이



1 공예주간에 출품된 소반, 현대 공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예주간 자체 기획 전시인 '크래프트 리턴' 전시장. 공예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했다. | C영상미디어

모여 있는 거리에서 판매장터, 전시, 체험, 투어 등이 동시에 열리는 축제다. 공예라는 단일 주제로는 처음 열리는 행사여서 그 어느 때보다 큰 화제를 모았다.

공예작가의 작업 공간부터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상업 공간까지 총 160여 개의 협력사들이 함께한 이번 축제는 도심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기에 충분했다. 축제는 진흥원갤러리 개막식으로 시작했다.

개막식 하이라이트는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처음 제정된 '올해의 공예상' 시상이었다. 공예계에서 20여 년 이상 활동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독창적으로 구축한 작가와 공예품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획, 전시, 판매 등을 하는 기관에게 시상했다. 1회 시상자로는 작가 부문 공예가 이현정 작가와 매개 부문 아원공방이 수상했다.

'크래프트 리턴' 공예가 돌아왔다

개막 첫날의 시작은 공예주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크래프트 리턴' 기획 전시였다. 개막식에 이어 진흥원갤러리에서 오픈한 전시에는 내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날로그에서 하이테크까지', '시장에서 플랫폼으로', '크래프터가 되는 다양한 방법' 등 네 개의 카테고리

로 기획된 전시는 아이디어의 도출 과정에서부터 제작 방법, 교육 형태, 유통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일상 속에서 변화하는 공예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보여줬다. 전통적인 우리의 소반부터 화려한 식기, 다기나 도자기, 가방 등 익숙한 생활 물건들은 장인의 정신과 손맛, 그리고 시대의 세련됨까지 갖추어 탄성을 자아냈다. 예술의 영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일상의 물건들이 주는 감동이 바로 공예가 주는 즐거움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공예가가 되는 방법을 제안하는 다큐멘터리 영상 관람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공예평론가 최범은 "주제를 공예의 귀환으로 정한 이유는 공예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데서 출발했다"며 "공예품과 공예문화를 더 이상 분리하지 말고 누구나 즐기는 공예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이번 공예주간 축제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예주간 자체 기획전시는 진흥원갤러리의 '크래프트 리턴'(5.1~5.20)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소금_빛깔_맛깔_때깔'(5.1~5.31) 전이다. 진흥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해 3년째 선보이고 있는 한식문화특별전 '소금_빛깔_맛깔_때깔'(이하 소금전)은 소금, 공예, 음식의 연결고리를 찾아 공예의 가치를 조명했다. 소금이란 화두를 통해 공예의 아름다움을 짚으면서도 소금과 음식, 또 그 과정마다 함께하는 공예를 보여주면서 그릇만이 공예의 전부라는 생각을 바꿔준



3 이번 공예주간 크래프트 리턴에는 공예가와 공방 등 160여개 협력사가 참가한 사상 첫 공예 축제였다. 4 디자이너 강금성의 수공예 생활예술 브랜드 빈 컬렉션의 전시 '안녕이라는 선물'의 전통 베개 작품들 5 요즘 생활환경을 배려한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더해진 수공예품들이 인기다. 빈 컬렉션 제품 6 '테이블 웨어'라는 일상의 테마로 우리 식탁에 필요한 다양한 금속공예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 C영상미디어

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이동훈 작가의 한식 사진이다. 장 담그기, 생선 염장, 젓갈, 김치 등을 만드는 과정을 안동 전통 한지로 인화해 보여주는데, 우리 삶 속 깊은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해온 한국 공예의 멋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다.

서울·경기 도심 곳곳으로 떠나는 감성 나들이

공예주간 행사는 인사동·북촌·삼청동을 중심으로 하는 종로 지역에서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공예를, 홍대·연남동·상수동 등에서는 재치 발랄하고 실험적인 젊은 공예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신당동에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역동적인 공예를 느낄 수 있다. 가로수길·청담동·성수동을 잇는 강남 지역에서는 최신 유행하는(트렌디) 공예를, 파주 헤이리·한국도자재단·경기상상캠퍼스 등이 함께하는 경기 지역에서는 유유자적 나들이와 공예를 즐길 수 있다. 160여 개 공예 관련 협력사가 함께하는 이번 공예주간 행사는 공예점들이 모여 있는 거리를 중심으로 열려 도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와 더불어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전시장과 공방이 활짝 문을 열고 일

반 관객객을 맞이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곳 중 하나는 문화역서울 284에서 5월 6일~7일 이틀간 펼쳐졌던 자체 기획 판매장터 '마켓유랑'과 행사주간 동안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열렸던 '공예와 마켓'이었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마켓유랑'은 우리 일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는 수준 높은 공예품을 제작하는 150팀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직거래 장터였다. 시민들은 작가들에게 생활에 밀착된 공예품의 제작 의도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이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공예주간 동안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는 매일 '공예와 마켓'이 열렸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예 작가와 작품들이 거리로 나와 대중 속에서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돼주었다. '공예와 마켓'에서는 섬유공예품과 전통공예품, 단청벽걸이나 고무신, 가죽공예, 수공예 패션 액세서리 등을 만나 볼 수 있는데, 인사동 입구에 자리 잡아 공예주간을 즐기러 온 시민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가세해 장사진을 이뤘다.

다양한 행사중에서 장인, 공예가, 공방이 '함께하는' 공예주간

추천명소는 놓치기 아깝다. 문체부와 진흥원이 공예주간 기간에 개최되는 공예문화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곳들이다.

장인, 공예가, 공방이 '함께하는' 공예주간 추천명소

종로구 통의동에서는 디자이너 강금성의 수공예 생활예술 브랜드 빈 컬렉션의 전시 '안녕이라는 선물'이 열렸다.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에서 자란 강금성은 친가와 외가의 할머니들로부터 명문가 여인들에게 전해지던 삶의 지혜와 예술 안목을 배웠다고. 자연에서 얻은 좋은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바느질, 거기에 요즘 환경에 맞춘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더한 베게와 이불 등 수공예품을 선보였다. 연남동의 복합문화공간스튜디오 안에서는 금속공예가와 함께 '테이블 웨어'라는 일상의 테마로 우리 식탁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다. 또한 기초적인 금속공예 작업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예가의 식탁'을 준비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 강남 신사동 킨디고 더쪽에서는 발효 염색 체험 프로그램 '쪽 향아 리 여는 날'이 진행됐다. 킨디고(Kindigo, Korean Indigo)는 한국의 쪽이라는 뜻으로, 잊혀져가는 한국의 쪽빛을 되찾고 세계에 알리는 전문기업이다. 이들은 건강한 입을 거리,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대안으로 쪽의 효능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공예주간 기간에는 발효 쪽 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옷을 직접 천연 염색 해보며 친환경 생활방식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예술적 감각과 감성을 키우는 만족도 높은 투어프로그램도 있었다. 크래프트 버스터어(공예이음버스)와 '서울 남산 재미랑 공방길 문화체험 투어'다. 공예이음버스는 이름 그대로 공예를 만나러 가는 길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공예주간의 대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순환 운행되는 버스다. 이음버스를 이용하면 공예 축제 관람을 보다 실속 있게 관람할 수 있었다. 서울 남산 재미랑 공방길 문화체험 투어는 봄날에 걷는 크래프트 로드였다. 명동역 3번 출구에서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공방에서 만나는 다양한 공예 전시와 체험, 마켓은 공예주간 속 또 다른 축제였다. 처음으로 시작된 공예주간은 공예가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 있음을 알기에 충분했다. 공예주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시와 행사가 있으니 아쉬움을 달랠 시간은 남아 있다. 가보자, 나만의 취향을 담아낸 공예품을 찾으려. ㉔



공예주간 행사는 인사동·북촌·삼청동을 중심으로 하는 종로 지역에서 열렸다. | C영상미디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폐막 이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크래프트 리턴 (5.1~5.20 /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

다시 돌아온 공예는, 단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되돌아온 공예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크래프트 현상'을 통해 변화한 사회와 일상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담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 대표적인 공예주간 기획전시다.

소금·빛깔·맛깔·때깔 (5.1~5.31 / 국립민속박물관)

앞서 소개한 공예주간 자체 기획 전시로 5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 회화, 사진, 영상과 함께 다양한 재료의 품격 있는 현대 공예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시각, 미각, 촉각이 어우러진 융복합전시로 진정한 공예적 태도와 가치를 조명한다.

장인들 '술 빛는 장인 공예 하는 장인' (5.5~5.26 / 신사동 갤러리 LVS)

1625년 일본 가나자와에서 창업한 일본 전통주 회사 후쿠미츠야는 장인정신으로 양조해온 술과 그 지역 공예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제안하는 상생의 가치를 지닌 기업이다. 후쿠미츠야의 사례와 일본의 최고정점에 있는 유리공예를 소개하고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윤택한 삶을 위한 '공예의 일상화'를 제안하는 전시다.

크래프트워크와 함께 (5.1~6.7 / 인사동 갤러리 작은자연·소연)

그릇 만들기로 출발해 오늘날 금속조형작가로 불리기까지 시작과 전개 과정을 볼 수 있는 금속공예가 김승희의 전시다. '눈물 단지가 보물단지로...'라는 전시 제목처럼 6kg의 쇠파스를 들고 눈물로 시작한 그의 대장장이 작업 이야기가 웃음이 담겼다.

그 남자의 공예 (4.30~5.28 / 상수동 디티에이بل)

금속 재료를 이용해 핀홀카메라와 시계를 만드는 작가 현광훈의 전시다. 카메라와 시계는 세밀한 금속 부품으로 이뤄지는 메커니즘으로 완성되는 기계식 무브먼트로 오래전부터 남성들에게는 사랑받는 아이템이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다른 세대, 다른 생활방식과 상황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우리 수공예 디자인의 매력과 그 문화 향유 방식에 대한 신선한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를 복춘가_음용도구전 (4.19~5.17 / 북촌 예울/ 월, 공휴일 휴관)

기물을 직접 손으로 느끼고, 음료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감상하고, 술과 차를 위해 제작한 차림상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예울만의 유일한 오감체험 전시를 선사한다. 각기 다른 영역의 작가들의 협업 작업을 통해 작가 개인의 개성과 단체전의 조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누구든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유롭게 정부 정책을
토론할 수 있다. 식품·외식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부와 전문대학 8곳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식·의약품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이달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일
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
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
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
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국세
청의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
스 등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안내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상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
다. 장려금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전문대학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립 지원

국내 전문대학 8곳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장학금 지
원과 기숙사 우선 배정, 취업 우선 지원 등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의 대학 진학률(2016년 기준)은
26.7%로 일반 아동(70.7% 추정)보다 현저히 낮고, 대학에 진학하더라
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0

보청기, 의치 등 의료기기 사용 주의법 등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청기와 치과용 임플란트, 의치 등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사용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의료기기
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보청기는 개인의 청력과 귀 모양에 따라 맞춤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청기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검사 시 제거해야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착용하고 지나갈 수 있다. 물이나 땀
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보청기를 빼는 것이 좋고, 뺀 보청기는 제습
제가 들어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과 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들은
치조골이 부족해 임플란트 이식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의사와 충분
한 상담이 필요하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내과 질환이 있다면 시
술 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술 이후에는 시술 부위에 염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음주나 흡연을 일주일 동안 삼가야 한다. 또 시술 부위에 무
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지 않아야 하고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이식이 완료되
기 전까지는 양치질 대신 양치액을 사용하고 주변 치아는 치간 칫솔,
치실을 사용해 관리하도록 한다.

틀니는 입 안을 물로 깨끗이 헹군 뒤 탈·부착하고 빨 때는 천천히 흔들
어가며 빼내야 한다. 틀니를 보관할 때는 변형이나 세균 증식 등을 방
지하기 위해 깨끗한 찬물에 담가놓아야 한다. 틀니 부착재는 제품마다
1회 사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틀니와 잇몸에 남아 있는 부착재는 미지
근한 물과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낸다. 만약 틀니 부착재로 인해 알레
르기나 울렁거림 등 이상반응을 느낀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구강소화기기과 043-719-4552



치조골이 부족한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 전과 후 주의가 요구된다. | 연합뉴스

식품·외식분야 청년 인턴십 운영

식품·외식분야 청년 일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인턴십 사업'을 실시한다. 인턴십이 실제 취업과 연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국내외 식품·외식기업으로부터 인턴 수요를 파악해 국내 60명, 해외 20명 등 총 80명의 인턴십을 운영한다. 국내 기업으로는 남양유업, 해태제과, 인터콘티넨탈호텔, 아워홈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다. 해외기업은 aT 해외지사를 통해 외국에 진출한 식품기업과 해외 식품기업 가운데 한국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곳이다.

인턴 기간은 최소 6주부터 최대 6개월이며 인턴 급여는 약 160만 원이다. 인턴 급여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1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열려

국민이 자유롭게 찾아가 공무원, 전문가와 정부 정책을 토론하는 공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섰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광화문1번가'가 지나가던 사람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었다면, 열린소통포럼은 정책 토론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광화문1번가에는 18만 705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1718건이 채택되었고, 이 중 99건이 국정 과제에 반영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구성하고 열린소통포럼에 제안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과 연계해 인터넷으로 생방송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댓글 참여, 토론 결과 공유 등도 가능하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2-2100-3460



2017년 5월 '광화문1번가'를 찾은 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글을 작성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식·의약품 구입·섭취 때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품 구매 요령과 섭취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화(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www.foodsafetykorea.go.kr)로 신고하면 된다.

화장품의 경우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이끌려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어린이날 행사에서 페이스페인팅을 할 때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색채물감 등 공산품을 피부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기를 선물한다면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 사항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의 75% 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지원금 신청자 수가 178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월 24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는 178만 5161명.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자 신청서 접수 독려 등에 힘입어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신청자 수가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는 인원 감축이나 근로시간 단축 대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 중구의 무대 의상 제작·납품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당 부분 충당, 인원 감축 없이 현재 노동자 20명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기획부 02-2670-0482

이번주엔 무엇하고 놀지

독창적인 스타일로 현대 초상 회화의 거장으로 우뚝 선 알렉스 카츠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소개된다. 치매에 걸린 아내로 인해 점점 변해가는 가정의 모습을 그린 연극,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차근차근 모은 레시피에 떠나는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담하게 녹여낸 에세이집, '아들바보' 프로 살림러 귀보의 일상에 일어난 유쾌한 사건을 그린 영화 등 이번 주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기억과 시간을 잃어버린 자리에
사랑이 들어왔다

연극 | 사랑해요, 당신

퇴임 전 교사로 일했던 한상우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한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마음과 달리 항상 통명스러운 전형적인 70대 아버지다. 그런 한상우와 45년간 함께해온 아내 주윤애는 직장갑질가정만 오가고 감정 표현에 인색한 남편, 미국에 사는 자식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외롭다. 남편에게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지하게 귀 기울일 줄 모르는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이 변한 것 같아야 속하기만 하다. 어느 날 주윤애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가족은 큰 시련과 마주한다. 늘 옆에 당연히 있었던 아내가 곁에 없을 거라는 사실에 한상우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기간 6월 3일까지

장소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문의 1566-5588

아시아 최대 규모로 만나는
현대 초상 회화 거장의 작품 세계

**전시 | 모델&댄서:
아름다운 그대에게**

도시의 일상적 인물과 삶을 아름답게 표현한 현대 초상 회화의 거장 알렉스 카츠(Alex Katz)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1960년대 초창기 작품부터 올해 완성한 최신작까지 초상화, 풍경화, 설치작품 등 총 70여 점이 소개된다. 1960년대 뉴욕은 색면 추상, 올오버 페인팅, 팝아트 등이 주류를 이뤘다. 카츠는 특정 미술 사조에 편승하지 않고 색면과 인물을 결합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초상화 스타일을 구축해 주목받았다. 전시는 '모델과 댄서'가 주제다. 카츠는 아름다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무용수를 보고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이 전시는 모델과 댄서를 보고 느낀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 주로 소개된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눈여겨볼 작품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CK(캘빈 클라인) 시리즈와 코카콜라 걸 시리즈다. 카츠가 택시에서 우연히 캘빈 클라인 광고를 보고 난 뒤 흰색과 검은색의 단순한 색 조합을 이용한 캘빈 클라인 시리즈가 탄생했다. 코카콜라 걸 시리즈는 빨간 화면에 금발 여성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광고에서 영감을 얻었다. 부인 '아다'를 그린 작품도 공개된다. 1958년 이후 아다가 시간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기간 7월 23일까지 장소 롯데뮤지엄 문의 1544-7744



'Laura 8' (2017),
Oil on linen,
152.4×228.6 cm ©
Alex Katz,
VAGA, New York,
SACK/Korea, 2018

아들바보 프로 살림러의 유쾌한 일상

영화 | 레슬러

‘귀보(유해진 분)’는 과거 레슬링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현재 특기는 살림, 취미는 아들 자랑, 남은 것은 주부 습진뿐인 ‘프로 살림러’다. 귀보의 유일한 꿈은 촉망받는 레슬러 아들 ‘성웅(김민재 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오늘도 아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주고 레슬링 체육관에서 아줌마들에게 신나게 에어로빅을 가르치던 귀보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훈련에 나가지 않겠다는 성웅의 충격 고백을 듣게 된다. 갑작스런 아들의 반항에 당황한 귀보, 설상가상으로 뒷집 이웃이자 성웅의 소꿉친구 ‘가영(이성경 분)’은 귀보를 좋아한다며 엉뚱한 고백을 쏟아낸다. 평화롭던 일상이 순식간에 뒤섞이며 귀보는 혼란에 빠진다.

개봉일 5월 9일



사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나타난 러브픽션

영화 | 루비 스팅스

‘캘빈(폴 다노 분)’은 크게 히트 친 소설을 낸 천재 작가다. 하지만 유명세에 대한 압박으로 제대로 된 작품을 내지 못하는 남모를 고통을 안고 있다. 심리치료사는 캘빈에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자신이 쓰고 싶은 소설을 쓰길 권한다. 캘빈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태어난 곳, 자란 곳, 성격, 취향까지 모두다. 이상형의 이름은 ‘루비 스팅스(조 카잔 분)’. 루비를 주인공으로 로맨틱한 소설을 쓰며 상상 연애 중인 캘빈 앞에 그의 완벽한 이상형인 루비가 소설을 찢고 눈앞에 나타났다. 루비와 현실 연애를 시작하는 캘빈은 사랑에 빠질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개봉일 5월 10일



가슴에 고통 품은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 이야기

책 | 베어타운

〈오베라는 남자〉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감동소설의 대가 프레드릭 배크만이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소설 배경이 되는 베어타운은 일자리도, 미래도 없이 막다른 곳에 내몰린 소도시다. 온 마을이 아이스하키에 매달리는 이곳은 과거의 영광도 하키로 이루었고, 몰락도 하키에서 비롯됐다. 그들에게 찾아온 마을을 되살릴 단 한 번의 기회는 극적으로 전국대회 준결승에 진출한 청소년 아이스하키 팀의 우승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목적인 꿈을 몇몇 청소년의 어깨에 싣는다. 하지만 마을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을 품은 대가를 가슴 아프게 치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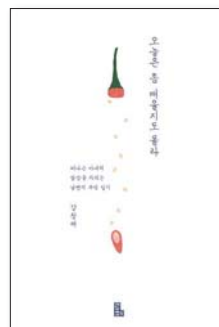
저자 프레드릭 배크만(다산책방)

떠나는 아내의 밥상을 차리는 남편의 부엌 일기

책 |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암투병 중인 아내가 부엌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남편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한다. 어떤 음식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남편이 마음을 다해 만든 음식만 겨우 입에 닿 뿐이다. 남편은 요리라고는 라면을 끓여본 것이 거의 전부였던 사람이다. 조리대 앞에 설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미 해본 요리도 다시 하려면 헛갈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빠뜨리기 일쑤다. 모든 것을 글로 배운 사람답게 메모로 요리법을 적기 시작해 요리책 같으면 서도 요리책이 아닌 문학 에세이가 됐다. 책에 등장하는 메뉴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집에서 늘 먹는 밥과 찬이지만 만들고 먹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작고 소소한 드라마는 늘 특별하다.

저자 강창래(루페)



Quiz

공감 452호 되새김 퀴즈

정성껏 준비한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기사를 천천히 곱씹어 읽은 뒤 답을 찾아보세요. 정보도 얻고 행동도 얻을 수 있습니다.

01

문재인 대통령은 개방, 공개, 실용을 바탕에 둔 ○○을 중시했다. '온라인 국민청원', '공론화 위원회' 등 국정운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국민적 요구와 의사를 국정에 반영했다.

02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 선언'은 3개 조항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450호 퀴즈 정답

[도라산, 플랫폼]

당첨자

이응석(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최은순(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105번길)

홍소진(서울 강서구 양천로 66길)

Review



취사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외식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데, 군대에서 적성을 찾고 취업까지 성공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육군이 성실하게 군복무한 장병들을 기업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앞길을 개척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이응석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 초등학교 딸아이가 '부모님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봐라'는 숙제를 받아왔어요. 어린이에게 남한과 북한 그리고 실랑이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이 "빨리 통일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과 만나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통일의 필요성은 이것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정한 한 나라, 한 민족이 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최은순 |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105번길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나름대로 결혼식을 간소화하고 실속 있게 치르겠다고 다짐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평생에 한 번뿐이지 않느냐'며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값비싼 웨딩 드레스가 그랬죠. 그런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드레스는 가격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용지 청첩장도 눈에 띄었어요. 유독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친환경 결혼식 문화가 더욱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홍소진 | 서울 강서구 양천로 66길

디지털 <위클리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blog.naver.com/mcst_pr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이나 제안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16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시고,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감 되새김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를 이용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빌딩 13층 (주)조선뉴스프레스
<위클리 공감> 편집부 앞(우 03909)

위클리 공감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세 부처의 모임

A GATHERING OF THE THREE BUDDHAS

상주
용흥사
괘불

보물 제1374호

Buddhist Hanging Scroll
at Yongheungsa Temple

2018년 괘불전

05.04. FRI

10.28. SUN

서화관 불교회화실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